

제10회 싱가포르 에어쇼를 다녀와서

| 진시부 대리 | 김태해 |

싱가폴 에어쇼 개최 현황

싱가폴 에어쇼(Asian Aerospace & Defence Technology and Airshow)가 지난 2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창이공항(Changi Airport)내 창이 전시장(Chang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81년 처음으로 에어쇼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는 30개국 950개 업체가 살레 96동을 포함하여 실내 전시장 약 20,000sqm 및 항공기 48대 등을 전시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터키, 호주 등 19개 국가가 국가관을 구성하였다. 주요 전시참가 항공기로는 라팔, F/A-18, F-15, Mirage2000 등 전투기와 보잉 737 BBJ, Bell609 헬트 로터기 등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Global Express, 걸프스트림, Falcon 900EX 등의 비즈니스 제트기와 컴퓨터기가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소형항공기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시범 비행



에어쇼전경

싱가폴 에어쇼 주최자인 Reed Singapore 사장 Jimmy Lau는 금년 행사에 총 290여명의 세계 주요 인사를 각국으로부터 초청하여, 이중 약 21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세계 100대 항공우주 기업중의 70개 업체가 동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곡예 비행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싱가포르 공군의 Black Nights, 프랑스의 Patrouille de France 및 호주의 Roulettes 등 3팀이 매일 곡예 비행을 선보였다.

회원사 동향

우리나라 업체중에서는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이 약 40sqm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하여 동사의 엔진정비활동 및 능력소개와 엔진부품 제작 및 복합발전소 분야 등을 홍보하였으며, F-100 엔진 및 LM2500, 각종 블레이드 등을 전시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Lockheed Martin과 공동으로 KTX-II명칭 변경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KAI의 임인택 사장과 LM의 Robert Young 아시아 담당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

여 T-50, Golden Eagle로의 명칭 변경 배경 및 향후 사업 구도, KAI 및 Lockheed Martin 간의 협력 구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하였던 전문가 및 주요 부품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개발현황, 시장규모, 경쟁기종 대비 가격설정 배경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협회, 서울에어쇼 홍보관 운영

우리 협회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공항에서 개최될 서울 에어쇼 2001(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의 전시참가 업체유치를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위아중공업, 한화, 한국로스트왁스, 천지산업 등 5개 회원사의 홍보보로서 전시, 회원사 소개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하였다.

행사기간중인 22일에는 서울에어쇼 2001 Show News 공식 발행 업체로 지정된 ADJ의 Hussian bin Syed Adul 편집장과 협회 전시이사간에 서울에어쇼 Show News 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서울에어쇼 2001의 업체유치를 위하여 상호협력, DSA 및 기타 전시회 기간중 브로셔 배포 등의 Promotion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 하였다.

또한 홍보부스 운영외에도 전시 참가업체 전시부스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서울에어쇼 참가시 국가관 구성 형태의 전시참가 유도를 위하여 영국 SBAC, 프랑스 GIFAS, 이탈리아 IAAD등의 각국 협회 전 시담당자와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AIA(미국협회)와는 미군 항공기 및 지상장비 전시 참가에 따른 미군 병사들의 편의시설 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차세대 전투



ADJ와 서울에어쇼 Show News 발행을 위한 계약체결

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기종(Rafale, F-15, EF-2000)의 전시참가 및 시범비행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싱가포르에어쇼 기간중에는 2000년 이후 국내 컴퓨터기 항공기 취항 계획과 관련하여 ATR-70, EMB-145, CRJ-70, King-Air 전시참가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 하였다.

또한 영국의 DESO, 터키의 DMA, 이스라엘의 SIBAT, 이탈리아의 IAAD, 프랑스의 GIFAS 등 각국의 방위산업관련기구에게는 서울에어쇼 2001부터 방위산업전홍회가 공동 주최하게됨을 홍보하면서 각국 지해상 방위산업체의 전시참가를 권유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싱가포르에어쇼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항공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전망에 따라 구미업체의 시장진출 모색이 적극적인 가운데 30개국 950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전시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차세대 전투기사업, 2000년 이후 국내 컴퓨터기 취항계획, 지해상 방위산업분야 확대 등 여러가지 비즈니스 창출요소가 많아 예년에 비해 서울에어쇼 행사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